

# 땅속 지뢰를 찾는 쥐... 발 관리사 닥터 피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동물의 직업

마리오 루트비히 지음, 강영욱 옮김

‘발 관리사’ 닥터 피시, ‘드론 저격수’ 독수리, ‘일기에 보를 하는’ 개구리, ‘땅 속 지뢰를 찾는’ 쥐...

위는 미처 알지 못했던 동물들의 각양각색 ‘직업’에 관한 부분이다. 동물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생명체다. 그 가운데 개는 1만5000년 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도왔다. 사냥과 양치기, 경비와 같은 일이 그러한 예다.

비단 개만 인간을 도운 것은 아니다. 인간은 동물을 길 들여 가족으로 삼아 일상에 많은 부분을 해결해왔다. 고대시대 코끼리는 전투에 가장 유용한 동물로 인식될 만큼 활약상이 뛰어났다.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동물의 직업’은 제목부터 흥미롭다. 특수한 일을 하는 동물의 세계를 다룬 터라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독일의 생물학자이자 과학 저술가인 마리오 루트비히가 저자다. 그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동물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책들을 펴냈다. ‘매력적인



포식자들’, ‘동물의 가족 생활’ 등 다수의 저서는 동물이 어떻게 인간과 관계를 맺어 왔는지 등을 다뤘다.

책에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탄자니아 모로고로에 소재한 APOPO라는 비영리단체는 결핵 세균 냄새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쥐를 양성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쥐들은 새끼일 때부터 환자의 타액 샘플에 있는 결핵균을 탐지하는 훈련을 받는다. 보상 체계에 따른 조건 반사가 이뤄진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쥐는 최대 8년 동안 결핵균을 탐지할 수 있다.

사실 탄자니아에서는 결핵 환자의 약 3분의 2는 자신이 결핵에 감염됐다는 사실도 모른다. 이곳에서 결핵은 말라리아와 에이즈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배출한다. 매년 수만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결핵균 탐지 쥐의 역할은 사투 중요하다.

전기가오리는 가슴지느러미 근육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이 근육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전기 기관’으로 변형됐다. 전기가오리는 먹잇감을 사로잡는데 전기 충격을 활용한다. 전기 충격의 효과가 가장 발휘되는 거리는 0.5m다. 사람에게도 이 전기가오리가 주는 충격은 “강편지에 녹다운하는 것에 비교”될 만큼 강력하다.

고대 로마인들은 심한 두통을 치료할 때 전기가오리를 사용했다. 로마의 의사 스크리보니우스 라르구스의 ‘콤포시티오네스 메디카에’는 “살아 있는 전기가오리를 통증 부위에 올려놓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두면 통증 부

위가 마취된다”고 기술돼 있다.

사향고양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만드는 동물이다.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이 고양이는 원래 작은 곤충이나 벌레를 먹고 산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잘 익고 설탕처럼 단맛이 나는 커피”인데 복은색 과육만 소화할 수 있다. 당연히 커피 원두는 배설할 수밖에 없다. “소화관을 통과하고 나면 고급스러운 맛, 아주 독특한 맛”은 세계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는다.

“사향고양이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 용변을 본다. 사향고양이에게 일종의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커피 농부들에게는 행운이다. 덕분에 커피 농부들은 다음 날 같은 장소에 가서 고양이의 장에서 고급화 과정을 거친 원두를 모아 깨끗하게 씻은 다음 로스팅 장소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 공항은 이색적인 ‘환경 경찰’이 있다. 공항 당국은 매년 약 7만 마리의 꿀벌들을 환경오염 상태를 감찰하는 ‘바이오 탐정’으로 파견하고 있다. 벌써 20년째다. 벌을 매개로 항공 교통이 주변 대기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부지런한 꿀벌들은 3km 이내에서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꿀 성분을 분석하면 공항 주변의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책에서는 ‘웃감이 될 실을 찾는’ 조개와 ‘날개 달린 검투사’ 귀뚜라미, ‘여러 재주를 선보이는 작은 예술가’ 벼룩 등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현암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날개 달린 방사선 전문의’ 비둘기, ‘대기질을 검사하는’ 벌, ‘일기에보를 하는’ 개구리 등 동물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 소설 만세

## 정용준 지음

작가 정용준은 지난 2009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에 단편 ‘굿나잇, 오블로’가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장편 ‘내가 말하고 있잖아’, ‘프퐁 토니오’, ‘바벨’과 중편 ‘유령’, ‘세계의 호수’ 그리고 소설집 ‘선릉 산책’,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등을 펴냈다.

그동안 황순원문학상, 젊은작가상, 문지문학상 등을 수상한 이력에서 보듯 그는 소설 창작의 길을 우직하게 걷고 있다. 그가 정의하는 소설은 “단 한 사람의 편에서 그를 설명하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소설 만세’는 그런 그의 단상을 모은 에세이집이다. 민음사의 ‘매일과 영원’ 시리즈로 출간된 에세이는 문학잡지 ‘릿터’에 지난 2021년부터 1년간 연재된 결과물이다. 소설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담은 글들을 더해 완성했으며, 마침표 대신 투명한 ‘만세’를 적는 마음을 보냈다.

“투명해서 나만 읽을 수 있는 그 문장은 중얼중얼 애저로운 주문이 되었다. 나중에 불가능한 목표를 적어 벽에 붙인 표어 같은 것이 되었고 지금은 불안하여 뭉뚱지 믿어 보려는 믿음이 되었다.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을 삼는 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소설이 필요한 내게 그 문장은 분명 힘이 됐다.”

작가 정용준이 상징하는 소설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는 마음과 유사하다. 잘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일단 열심을 다하는 것, 내 슬픔의 깊이를 살피기보다는 상대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설을 생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소설을 쓰고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건넨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가치가 있어요”라고.

〈민음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무 심는 CEO

## 고두현 지음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친환경, 자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는 친환경과 탄소 경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21세기는 아니 앞으로의 미래는 자연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대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수급은 세계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경영에 자연의 가치를 담은 책 ‘나무 심는 CEO’는 리더의 통찰을 돕는 생태인문 책이다. 저자는 모든 경영자들은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시인이자 언론인인 고두현 씨가 저자로 그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성숙, 심신의 안식 등 자연이 펼쳐 낸 새로운 미래를 개인과 기업,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숙고한다.

저자가 소개하는 꽃과 나무는 옛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련하다. 나무와 꽃으로 대변되는 자연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20세기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어느 날 공원 아래를 거닐며 괴테 시를 암송하다가 자기장과 교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날개가 있어 밤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을 읊조리다가 ‘그래, 태양처럼 전류를 먼 곳까지 보낼 수 있는 교류발전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미쳤다. 그 순간 나무는 ‘전기 혁명’이라는 아이디어를 준 ‘영감의 안테나’로 전이됐다.

저자는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심고 키워야 하는 경영자들에게 자연의 지혜는 비전에 대한 해결책을 준다고 강조한다.



〈더숲·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

## 박성수 지음

벤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수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가 인정하는 각 분야의 천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걸려나지 못한, 그리고 미처 이들이 ‘천재’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입시제도에 올인한 우리의 교육열에 기댄 것도 아니다. 허준이 교수는 오히려 공교육에서 ‘수학만 빼고 잡았다’고 고백했다.

교육부에서 오랜기간 한국 교육정책을 담당해온 박성수 교육평론가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자는 사회 전체의 ‘공부신앙’에 발맞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자신의 임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 애쓰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심정을 직시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을 썼다.

국내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왜 ‘인서울’ 입학이 교육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입시교육에 대부분을 내어 주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로 산다는 것’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부모에게는 허심탄회한 고찰을, 문제의식이 없는 학부모에게는 우리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준다. 저자는 변화무쌍한 교육 정책 일선에서 자신이 느낀 한 가지 해답은 학부모의 마음, 즉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주소가 있기까지 그 유래를 짚어보고, 어쩌다 ‘공부신앙’이 사회 전체에서 편협한 방향으로 흘러가 굳어버렸는지를 일깨워준다.



〈공명·1만8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